

기억 · 만주성위 · 만주국 : 만주성위 기억과 기록의 합주곡으로 본 만주국 생김새

朴 宣 泚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1. 서론: 사회적 기억이란?

동북지역¹⁾에서 공산당 활동을 총괄했던 만주성위는 1927년 만주임시성위로 건립되었다. 1928년에 만주성위로 개칭한 후 혁명 역량이 박약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공산혁명을 수행하고자 기초적인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만주성위가 동북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투쟁하던 시기여서 소위 계급 모순을 강조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1931년 일본이 동북을 침략한 뒤로는 중국 관내에서의 공산당 정책과는 달리 점차 민족모순이 강조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5년 코민테른이 블라디보스톡 활동처 책임자 楊春山을 통해 만주성위를 해체시킬 것을 전달하고²⁾ 1936년 1월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만주성위 해체수속을 집행한 후, 3월에 전쟁환경 및 지리, 경제, 교통 등의 이유를 들어 만주성위 해체를 최종 통보하기에 이르렀다.³⁾ 만주성위가 동북지역에서 활동한 시간이 다른 지역의省委에 비하면 그리 오래 되지 못하고 특히 만주국 건립이후로부터 계산하면 활동한 시간이 몇 년 되지 않아 대체로 만주국 13년의 역사 가운데 초반부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만주성위가 활동하던 시기 만주국에 대한 인상이나 기억은 대체로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을 점령한 후 만주국을 세워 얼마나 동북을 수탈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왜냐하면 당시 만주성위의 활동 내용이 항일운동에 치중되어 있어서 만주성위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과 기억에는 일본의 잔혹함과 수탈성 또는 일본이 집요하게 항일운동을 방해한 결과 만주성위의 각종 조직이 수없이 붕괴되고 또 세워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고통들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만주성위를 통해 만주국에 대한 기억을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집단 기억은 특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구성되고 만들어지며,⁴⁾ Maurice Halbwachs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의 집단기억은 모두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갖춘 단체로부터 지지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⁵⁾ 또한 집단기억은 누적되고 삼입되는 다양한 과거 사실로부터 구성되어 온 산물이기 때문이다.⁶⁾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1) 본고에서는 직접인용에서 만주가 사용되는 경우 외에 지역으로서의 만주는 동북으로 통칭한다.

2) 「共產國際負責人給春山的信」(1935년 11월 26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21, pp. 411-416.

3) 1936년 3월 12일에 「給珠河黨團縣委及三軍負責同志的信」을 보내 정식으로 만주성위 해체를 선언하였다. 李範五, 「吉東地區的抗日鬪爭」(1933-1936년), 1983년 4월 15일 정리,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3, p. 139; 王秉忠, 「東北淪陷十四年大事編年」,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0년, p. 199.

4) 황명주, 「국사라는 기억의 제도, 그 모호한 확신의 열정」 『당대비평』25, 2004년 봄호, p.85.

5) Halbwachs,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Colophon Books, 1950, p. 84; Lewis A Coser, 邱滄生 譯, 「阿伯瓦克與集體記憶」 『當代』91, 1993. 11. p. 27.

6) Lewis A Coser, 邱滄生 譯, 앞의 논문, p. 35.

사람의 역사기억은 재구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혹은 정치 사회 현실에 따라 구성되기도 한다.⁷⁾ 서로 다른 사회집단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매우 단편적인 역사관점에 기대어 그들 성원의 공동이익을 지지⁸⁾하기 때문에 역사기억의 신뢰도에 대해 회의를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기억은 강압되지 않으면 불러내오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어떤 역사기억이 정치적으로 강한 저항을 받는다면 정치적인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복원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기억의 자원은 시대나 단체 또는 지역이나 계급으로 인해 또 사람의 다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역사기억이 재구성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또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 역사 기억은 자주 현실적인 압박에 의해 튀어 나오지만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임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⁹⁾

사회학에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Maurice Halbwachs는 개인의 기억은 사실상 일종의 집단적인 사회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정, 가족, 국가, 민족 등 모두 상응할 만한 집단기억이 있으며 우리의 많은 사회활동은 모두 이 기억을 강화하는 집단적인 회고활동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경일의 경축활동이나 연설은 개국을 기억하는 ‘공동의 기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을 응집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는 집단기억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았다. 그렇다고 하여 집단기억이 어떤 신비하고 추측하기 어려운 집단의 심리상태도 아니다. 왜냐하면 “집단기억은 하나의 동질성이 있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부단히 역량을 흡수하고 작용한 끝에 실질적으로 단체 구성원의 하나인 개체가 기억한 것”¹¹⁾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만주성위의 만주국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자료와 구술역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구술역사는 당사자가 친히 경험하였던 기억을 정리한 것으로 역사 문헌상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역사사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역사가에게 역사연구의 새로운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당시대 사람들의 구술 역사적 가치는 관련 있는 과거의 지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당대(當代)’ 사회의 정체성과 권력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구술역사라는 기억을 통해 우리는 각종 경계나 주변부에 있는 것이나, 소홀해 버린 역사 기억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역사의 본질과 그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²⁾

문헌자료와 구술역사는 역사 기억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억이 있을 수 있었던 사회적 상황과 사회 속에서 얻은 일종의 역사와 시간과 관계된 문화 개념으로서의 역사적인 심성(historical mentality 혹은 historicity)인데 이들의 변천이 바로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역사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역사기억과 역사 심성 각도로 사료를 분석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역사사실은 사료 표면에 드러난 역사사실을 보충하고 심화 시키며 혹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기억, 역사심성으로 역사사실을 분석하고 탐색함으로써 많은 새로운 역사 연구의

7) 王汎森, 「歷史記憶與歷史: 中國近世史事爲例」, 『當代』 91, 1993. 11. p. 40

8) 蕭阿勤, 「集體記憶理論的檢討: 解剖者, 拯救者, 與一種民主觀點」, 『思與言』 35卷1期, 1997. 3. p. 258.

9) 王汎森, 앞의 논문, p. 46.

10) Lewis A. Coser, "Introduction: Maurice Halbwachs", in *On Collective Memory*, ed. & trans. by Lewis A. Cos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Maurice Halbwachs, *Les Cadres Sociaux de la Mem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2; 王明珂, 「歷史事實, 歷史記憶與歷史心性」, 『歷史研究』, 2001年 5期, p. 137.

11) Halbwachs,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Colophon Books, 1950, p. 48; Lewis A Coser, 邱澎生 譯, 앞의 논문, p. 26.

12) 王明珂, 앞의 논문, p. 141.

13) 王明珂, 앞의 논문, p. 136.

내용과 과거 중단된 연구 전통을 연속시키거나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객관적인 역사사실 배경과 주관적인 기억과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연구 노선을 함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역사 사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1931년 9.18사변 이후 만주성위가 당시 어떻게 일본제국주의 또 만주국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수 십 년이 지난 후 다시 당시의 활동을 어떻게 회상하며 회고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과 기억의 자료를 검토하여 만주국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자료로는 中央檔案館,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檔案館이 공동으로 편찬한 만주성위의 1차 사료인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과 만주성위 간부들의 회고록인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¹⁴⁾ 그리고 당시 만주국을 통치했던 관원들의 자술 내용을 묶은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¹⁵⁾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만주국의 이미지를 정리해 보고 결론적으로 만주성위가 만주국에 대해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던 이유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적 수탈의 수단과 괴뢰로서의 만주국

만주성위는 일본이 1931년 9.18사변 이전부터 만몽에 이미 적극적인 침략정책을 폈다고 여겼다.¹⁶⁾ 따라서 만주국을 건립한 이후는 일본제국주의 무력이 직접적으로 동북 지역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만주국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의 수단과 괴뢰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하였다.¹⁷⁾ 일본제국주의의 괴뢰 만주국은 ‘왕도주의’라는 말로 중국인을 속이고 있다.¹⁸⁾ 동북은 이미 일본제국주의 식민지가 되었고 전체 동북의 각 주요 도시는 이미 일본제국주의가 모두 점령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는 溥儀를 관내에서 長春으로 데려다가 만주국을 건립하였다. 溥儀는 이미 분장하고 등장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아류 황제가 되었다¹⁹⁾고 주장하였다.

14) 이 자료는 遼寧社會科學院地方黨史研究所가 동북지방당사를 연구하기 위해 만주성위 시기 활동했던 상황에 대해 회고한 것을 수집하여 1985년에 묶은 것이다. 내부 연구용으로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 출판된 것은 아니고 요녕사회과학원지방당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다. 이 회고록의 일부는 『中共東北地方組織的活動概況』編寫組, 『中國共產黨東北地方組織的活動概況, 1919.5-1945.10』, 黑龍江人民出版社, 哈爾濱, 1994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15) 中央檔案館 編,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中華書局, 北京, 2000. 이 책은 만주국 황제, 대신, 장교 이상 관원 총 40명이 撫順戰犯管理所에 수감되어 있던 시기에 정리된 자료이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이 전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자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주국이 괴뢰국이라는 점 또 그런 만주국에서 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국이 원래 주장하려는 내용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만주국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는 것을 통해 만주국에서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였는지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자료집에서는 만주국 관원의 자술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술할 당시 모두 전범으로 수감되었던 상황으로 인해 만주국과 인민들과의 팽팽한 긴장감을 드러내는 실상을 엿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 자료집을 통해 볼 수 있는 내용은 1. 일본이 9.18사변을 일으켜 동북지역을 장악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중국을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심의 일환이었다는 것. 2. 9.18 사변 후 일본은 신속하게 동북지역을 장악하고 만주국을 건립하여 부의를 황제로 내세운 괴뢰정권을 내세워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본제국주의 손안에 장악할 수 있게 계획했다는 것. 3. 부의는 일본제국주의를 이용하여 복벽이라는 꿈을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일본제국주의의 각종 정책으로 볼 때 만주국의 괴뢰성과 식민성이 부각된다는 것. 4. 만주국 군경 조직이나 활동을 통해 항일군 토벌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 군사 통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만주국의 지속적인 토벌에 엄청난 희생을 치루면서도 항일군이 지속적으로 투쟁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겠다. 中央檔案館 編,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p. 1-2.

16) 楊一辰, 「1929年-1936年中共滿洲省委及撫順黨組織活動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 13. 1960년 8월 23일 회고된 것임.

17) 「中共滿洲省委代表何湘給中央的報告: 關於滿洲目前政治經濟狀況, 群眾鬭爭及黨的工作」(1932年7月20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0, p. 167.

18) 「中共滿洲省委爲紀念‘九一八’兩周年告災民難民貧民書」(1933年9月1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5, p. 14.

19) 李實, 「9.18事變前後黨在東北領導革命運動的回憶」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3, p. 52. 1961년 5월 회고된 것임.

그러나 이런 평가를 듣는 당사자 부의는 다음과 같이 자술하고 있다. “계속되는 중국의 내전은 황제체제가 없어서 천하가 통일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황제 체제를 회복하려면 마땅히 열강을 본받아야 하는데 특히 일본의 명치유신이 바로 중국이 강성할 수 있는 길이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선조의 조국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다”²⁰⁾ “나는 일관되게 만청 회복을 자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다”²¹⁾라고 하면서 일본을 등에 업고 만주국을 건국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1934년 3월 1일 부의의 만주국 황제 대관식이 결정되자 만주성위는 일본이 단순히 만주국을 세우는 정도에 그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강도가 동북민중을 노예화하고 동북에서의 노예 통치를 공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²²⁾ 더 나아가 중국을 과분하기 위해 먼저 察哈爾, 綏遠을 강점하고 滿蒙國을 건립하며 동시에 外蒙人民共和國과 소련을 침략하고자 한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의 목적은 커다란 만몽국을 건립하여 동북사성, 察哈爾, 綏遠, 西藏, 西康, 新疆, 青海, 甘肅, 陝西, 河北, 外蒙人民共和國 심지어 시베리아까지 포괄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²³⁾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만몽대침략 운동으로 ‘만몽 적극 정책’을 일컫는 것이다. 만주성위는 만몽국 침략 운동이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을 점령한 이후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²⁴⁾

만주성위가 그리는 만주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의 선전전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주구이다’,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의 괴뢰이다’,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부’이다.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을 통치하는 새로운 도구이다’, ‘만주국의 왕도낙토, 민족자결 및 모든 선전 구호는 완전히 민중을 속이는 계략이다’, ‘만주국의 ‘건국’이라는 것은 지주자산계급이 만주를 팔아먹고 만주를 상실한 또 다른 이름이다.’²⁵⁾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만주국의 건국은 곧 만주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만주성위가 주장하는 만주국의 괴뢰성은 만주국 법령 공포 순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주국 정치의 특수성은 이중정치에 있었다. 즉 법칙이나 규정이 있으면 먼저 일본 군부가 지정한 주관 기관에서 준비하여 일본 군부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데 모든 정치는 관동군 사령부 제4과에서 관장하였다. 만주국의 법령은 주관부에서 기초한 후 총무청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는데, 심사 시에 일본 군부와 만주국 총무장관, 법제처장과 주관부 차장등이 긴밀하게 협의한다. 법제처 심의 후 총무장관이 주관부에 넘기면 주관부 차장 명의로 총무청 차장회의 일명 화요회의에 제출된다. 화요회의는 일본 군부 참모장 대리 제4과장이 참가하고 총무장관 등 각부 차장 등이 참석하는데 이 회의는 만주국 이중정치 최고 회의로서 여기에서 통과된 안건은 비록 국무원, 참의부, 심지어 만주국황제라고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²⁶⁾

이와 같은 만주국에 대해 만주성위가 이해하는 만주국 성립의 의의와 효과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의 불쌍한 군중을 박탈하고 동북 혁명운동을 진압하는 수단으로 만주국을 활용

20) 「愛新覺羅溥儀筆供」(1954년 6월 1일)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 5.

21) 「愛新覺羅溥儀補充筆供」(1954년 6월 21일)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 30.

22) 「中共滿洲省委關於反對日本強盜 滿蒙國侵略運動和第二期討伐 反日遊擊戰爭的工作決議」(1934년 2월 4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8, p. 19.

23) 「中共滿洲省委宣傳部關於「三一八」巴黎公社63周年紀念日宣傳大綱」(1934년 3월 2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8, p. 52; 「中共滿洲省委關於反對日本強盜 滿蒙國侵略運動和第二期討伐 反日遊擊戰爭的工作決議」(1934년 2월 4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8, p. 19.

24) 「溥儀登基的反革命意義」(1934년 1월 20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8, p. 245.

25) 「中共滿洲省委關於反對日本帝國主義 滿洲國紀念 建國一週年, 紀念「三一」韓國獨立運動的宣傳口號」(1933년 2월 21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2, pp. 173-177.

26) 「臧式毅筆供」(1954년 8월 9일)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 96.

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 실현을 돕는 것이다.²⁷⁾ 당시의 실질적인 인구를 감안하면 많이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중국 민중은 일본제국주의의 창, 칼, 독가스의 도살로 3천만 이상이 사망하였다. 중국민중의 재산이 손실되고 집이 망하고 사람이 죽는 상황은 모든 중국 민중이 경험한 바”²⁸⁾라고 강조함으로써 만주성위는 동북지역의 불쌍한 민중이 어떻게 박탈당하였나 하는 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가 소련을 진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일본제국주의가 ‘독립정부’로서의 만주국을 ‘독립국가’라는 명목과 간판을 이용하여 소련과 국제적인 관계와 교섭을 시행하여 결국 소련을 침공하려는 음모와 계획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²⁹⁾

셋째, 만주국은 동북과 전중국 및 전세계의 불쌍한 민중을 속이는 도구이다. 만주국은 ‘민족자결’, ‘군벌정권 반대’, ‘독립된 신국가 건설’, ‘인민 고통의 해소’, ‘민중의 복리 도모’ 등의 선전으로 민중을 속여서 일본제국주의의 동북 점령과 그 모든 강도행위를 덮어 민중을 마취시키고 민중으로 하여금 동북지역에 ‘새롭고’ ‘독립된’ 국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환상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만주성위는 만주국의 ‘대사면’, ‘춘곤기의 차관’, ‘이재민 구제’ 등으로 민중들을 속이고 이에 대해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은 민중의 반일운동과 모든 혁명 투쟁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이해하였다.³⁰⁾

만주성위는 끊임없이 일본제국주의가 점령한 동북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선전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이 직접 강점한 공장 및 기타 중요한 기업을 약탈한 결과 모든 중요한 공업, 중공업에서 경공업까지 완전히 일본이 강탈해 갔거나 혹은 만주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완전히 일본의 관리와 지배를 받는 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농촌경제도 일본이 토지를 강점하고 무장 이민 시켰으며 인민을 각종 가혹한 잡세와 고리대 등에 시달렸다. 동북지역의 고리대는 전국에서 가장 무거웠다. 또한 공업의 쇠퇴로 농촌 경제가 파산되었고 금융 고갈로 상업 중 특히 소자본으로 경영하는 상점이 더욱 어려웠다.³¹⁾ 따라서 만주성위는 이러한 식민지적 수탈과 괴뢰로서의 만주국을 세운 일본제국주의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반드시 농민을 깨우치고 지도하여 자신의 정부를 건립하여 농민의 복리를 도모한다고 주장하였다.³²⁾

3. 天地내 ‘만두’와 ‘지옥’으로서의 만주국

일본제국주의는 만주국을 건국한 후 ‘새로운 국가’, ‘신천지’ 등의 개념을 사용하며 ‘왕도정치’를 통해 동북지역의 민중들이 ‘왕도낙토’에서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광대한 인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만주국에 대한 풍자가 나돌기도 하였다. 만주국이 주장한 ‘천지내 새로운 만주가 있다’는 구호를 ‘천지내 새로운 만두가 있다’고 하였고 ‘새로운 만주

27) 「中共滿洲省委代表何成湘給中央的報告: 關於滿洲目前政治經濟狀況, 群眾鬭爭及黨的工作」(1932年7月20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0, p. 168.

28) 「滿洲總工會籌備處宣傳部關於‘九·一八’二周年宣傳大綱」(1933年8月28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4, p. 219.

29) 「中共滿洲省委代表何成湘給中央的報告: 關於滿洲目前政治經濟狀況, 群眾鬭爭及黨的工作」(1932年7月20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0, p. 169.

30) 「中共滿洲省委代表何成湘給中央的報告: 關於滿洲目前政治經濟狀況, 群眾鬭爭及黨的工作」(1932年7月20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0, p. 169-170.

31) 「中共滿洲省委何成湘關於最近滿洲工作報告」(1933年11月24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6, p. 324-330.

32) 夏尙志a, 「1932年黨在遼陽小堡一帶的活動」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2, 1961년 12월 23일 회고된 것임, p. 131. 중국공산당과 홍군은 동북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끝까지 항일한다는 결심을 표명하면서 전국 각지의 인민이 일어나 항일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夏尙志a, 앞의 글, p. 128.

는 바로 신천지이다’를 ‘새로운 만주는 바로 새로운 지옥이다’라고 개조하여 불렀다.³³⁾

만주성위는 만주국이 과연 신천지이고 왕도낙토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무수한 천만 중국 민중이 일본 강도에 의해 도살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亡道地獄이 아닌가?, 사망하지 않은 곳은 기아로 사망할 상태에 빠져 있고 노동자는 일을 찾을 수 없고 농민은 토지가 없으며, 있던 토지는 ‘王道主人’인 일본 강도와 주구인 만주국이 탈취하였고 이재민과 난민이 널려 있으며 매일 기아로 사망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정도인데 이것이 ‘왕도정치’를 하는 것이고 ‘왕도낙토’란 말인가? 도처에 가혹한 세금, 아편 公費가 민중들 몸의 살과 뼈를 으깨는데 이것이 어떻게 ‘왕도정치’란 말인가? 만주국 정부는 민중을 속여 ‘왕도주의’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일본 강도의 노예가 되는 亡國主義 아닌가?”³⁴⁾

만주국의 아편문제에 대해서는 만주국의 관리가 증언한 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본이 동북을 점령하여 만주국을 세운 후 관동군은 아편이 거대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편 독해 정책을 활용하여 동북인민을 해하고자 하였다”³⁵⁾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편전매제도는 중세를 거두어 재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북인민 독살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932년 가을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장 官駒井德三은 아편은 만주인민이 좋아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인민의 필요에 따라 아편재배면허증 소지를 허락하며 아편 흡식증(吸食證)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흡연이 가능하며 아편은 정부전매로 1933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신문에 발표하였다. 1933년는 장춘에 아편전매 공서를 두고 재정부에 소속되도록 하였다. 제1차로 각성에 지정된 아편 소매인은 1,300-1,400여명이고 길림성은 360여명이었지만 각성의 증액 요구로 300여명을 더 증가시키기도 하였다.³⁶⁾ 1933년 遼源 전매 서장을 역임했던 齊知政의 자술에 의하면, 약 1년간의 임기 내에 아편 10만 兩을 팔았는데 이는 약 만명에게 폐해를 입히는 양이며 그중 1/10은 청소년이 중독자가 되었다고 하였다.³⁷⁾

아편 전매로 만주국은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아편 전매 공서장 姜恩之가 재정부 대신 熙洽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아편전매 첫해인 1933년도에 수지를 제외한 잉여가 600여만원 이었고 제2년도인 1934년에는 천만원에 가까운 이익을 냈다고 한다. 이는 농민으로부터 저가로 아편을 착취하여 고가로 판매한 결과였으며, 또한 아편 전매를 통한 잉여창출은 동북인민을 진압하는 ‘치안공작비’와 ‘토벌비’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³⁸⁾ 1938년에는 ‘아편10년금연정책대강’을 발표하고 금연총국을 설치하여 아편중독자를 등록케 하였는데 당시 등록한 아편중독자는 99만여 명이나 되었다.³⁹⁾

만주국 경영자의 노력과 달리 만주국이 지옥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만주성위는 만주국이 극도의 백색공포 정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에서 민족을 압박하고 백색공포를 갈수록 심하게 하였는데, 항일의용군을 공격하면서 전 동북 민중을 폭격하고 도살하며 방화하고 약탈하는 등 도시 근교 철도를 따라 전 동북의 농촌까지 거의 초토화⁴⁰⁾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백색공포는 만주성위의 지하활동을 어렵게 하였고,⁴¹⁾ 만주성위와 관련된 조직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

33) 李權奎, 「東北黨史資料」,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 243. 1960년 8월 18일 회고된 것임.

34) 「滿洲總工會籌備處宣傳部關於九一八二周年宣傳大綱」(1933년 8월 28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4, p. 222.

35) 「金名世檢舉張景惠實行鴉片毒害政策的材料」(1955년 6월 3일)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 53.

36) 「金名世檢舉張景惠實行鴉片毒害政策的材料」(1955년 6월 3일)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p. 53-54.

37) 「齊知政筆供」(1954년 10월 23일)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 346.

38) 「金名世檢舉張景惠實行鴉片毒害政策的材料」(1955년 6월 3일)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p. 63-64.

39) 「金名世檢舉張景惠實行鴉片毒害政策的材料」(1955년 6월 3일)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 56.

40) 「中共滿洲省委何成湘關於最近滿洲工作報告」(1933년 11월 24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6, pp. 321-322.

41) 李權奎, 「東北黨史資料」,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 248.

면 여러 가지 엄형과 고문을 받았기⁴²⁾ 때문에 만주국이 지옥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는 단지 만주성위라는 조직 활동을 하는 자 뿐만 아니라 만주국에 협조한 듯이 보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많은 만주국군이 망국노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심산유곡에 들어가 항일세력을 토벌하는 고통을 참기 어려워 소극적으로 토벌에 임하기도 하였다고 회고 하고 있다. 어떤 2명의 사병은 항일군을 토벌하지 않기 위해 자살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병은 총포를 들고 탈영하여 항일군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의 토벌은 항일군을 소멸시킬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군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광대한 민중으로부터 민족적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⁴³⁾

만주국에서 군사와 정치부분을 담당하는 군정인원도 일본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노예화하는 상황 속에서 쉽게 안락하지 못했다. 그중 일부는 답답함과 방황 심지어는 동요를 느끼기도 하였는데 哈爾濱 만주국 경비사령과 같은 사람도 푸념을 하면서 일본제국주의가 그에게 행한 감시와 통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⁴⁴⁾ 또한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에서 실행한 약탈과 방화 및 진압 정책으로 광대한 민중이 반항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주와 자산계급까지도 어느 정도 일본제국주의에 불만을 표시하였다.⁴⁵⁾

만주국이 지옥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특무의 교활한 만주성위 조직 파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제국주의는 군대, 경찰, 헌병의 역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민중에 대해서는 매우 교활하고 특무나 앞잡이도 상당히 많이 배양하였다. 일본제국주의와 만주국 관헌이 경찰들을 밤낮으로 민중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음으로 보초를 서고 조사하며 계엄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다.⁴⁶⁾ 원래 일본제국주의는 만주성위 역량에 대해 과소평가하였으나 만주성위의 투쟁을 통해 그 역량을 파악하고 난후 더욱 중시하게 됨으로써 만주성위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⁴⁷⁾

만주국이 신천지가 아닌 또 다른 이유는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을 점령한 이후 동북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농업은 파산하였고 일본제국주의가 각지에서 폭격하고 사살하며, 내쫓고, 강점하는 등 각종 행위가 농촌경제를 파괴하였다. 각종 세금 및 토지세가 심 여배에서 수 십 배가 올랐고 항목도 많아졌다. 심지어는 아이를 낳고 사망한 사람도 모두 돈을 내야 했다. 대두의 가격이 3-4배로 폭락하였고 농민들이 손해를 보아 고리대를 하게 되는 것 등등은 일본제국주의와 만주국이 민중을 박탈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농민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업으로 유랑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⁴⁸⁾ 공업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상업도 완전히 파산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⁴⁹⁾

이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는 만주성위의 회고도 그 내용이 비슷하다. 哈爾濱의 물가가 계속 치솟자 민중들의 생활이 더욱 곤란해졌다. 중동철도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공장과 기업의 노동자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⁵⁰⁾는 것이 그것이다.

가끔은 ‘만주국’ 성립을 기념하여 소위 ‘危害國民緊急治罪法’에 의해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사인방은 이때의 문제를 큰 문제로 인식하여 만주국이 왜 사면을 했

42) 楊一辰b, 「關於張適齋烈士生前革命事迹介紹」,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 10. 1960년 6월 12일 회고된 것임.

43) 李范五, 앞의 글, p. 127.

44) 李實a, 앞의 글, p. 54.

45) 李范五, 앞의 글, p. 149.

46) 「中共滿洲省委紀念10月革命16周年告軍警書」(1933年10月24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6, p. 34.

47) 李實a, 앞의 글, p. 71.

48) 「中共滿洲省委宣傳部關於‘八二九’與‘九一八’的宣傳要點」(1934年8月15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9, p. 143.

49) 「中共滿洲省委宣傳部關於‘八二九’與‘九一八’的宣傳要點」(1934年8月15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9, p. 144-155.

50) 李實a, 앞의 글, p. 67.

을까 의심하였기 때문에 다시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다.⁵¹⁾ 결국 만주국에서 받은 사면은 또 다른 지옥을 만들었던 것이다.

4. 人災를 조장하는 만주국

만주국 통치하에서 1932년, 1933년 그리고 1934년에도 수재가 발생하였다. 만주성위는 동북지역의 수재민에게 성명서를 내었다. “일본제국주의가 무력으로 동북을 점령한 후 노동자 농민 불쌍한 민중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잔학무도한 행위와 포탄의 진압 하에 이미 수천의 이산, 실업, 도살, 유린, 간음과 노예가 됨으로써 구제불능 상황에 빠졌다.”⁵²⁾ 이러한 상황에서 전 동북지역에 보편적으로 수재가 발생하였다. 홍수는 이미 전 동북지역을 덮었고 北滿에서 南滿까지, 도시에서 농촌까지 송화강 유역을 따라 嫩江 유역, 牧丹江 유역, 烏蘇里江 유역, 黑龍江 유역까지, 중동철도 東西線을 따라 哈長線, 南滿線 등 홍수가 나지 않은 곳이 없다.⁵³⁾ “수천만의 노동자 농민 불쌍한 민중의 생명과 재산은 홍수에 휩쓸렸다. 집은 무너졌고 소와 말 농기구는 사라졌으며 추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추위와 빈곤, 온역, 질병, 사망의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외쳤다. 수재가 이렇게 심한 이유를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것으로서 天災가 아니라 人災라고 규정하였다.⁵⁴⁾

왜냐하면 일본제국주의와 만주국이 그들의 잔혹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반일의용군을 진압하고 반일운동과 모든 혁명운동을 분쇄하며 소련을 진공하기 위해 잔혹하게 다양한 잡세를 걷는 등 인민들의 삶과 피를 뽑아갔으며 공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제때에 댐이나 제방 등을 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⁵⁾ 일본이 지속적으로 동북 3천만 민중을 도살하는 전쟁을 함으로써 10집 중 9집은 비었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며, 죽은 사람은 죽고 잡혀간 사람은 잡혀갔기 때문에 민중들도 댐을 수리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수재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란은 일본과 만주국이 조성한 것이 아닌가?⁵⁶⁾ 라고 강하게 되묻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이를 ‘天災’라고 규정하고 거짓으로 자비를 베푸는 듯 수재의연금으로 구제를 한다느니 감세를 한다는 등의 말로 민중을 속여 투쟁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만주국 관헌이 ‘수재를 예방한다’ ‘구제한다’ 등의 말을 하지만 이는 민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주국 관료와 자본가 지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고 하였다.⁵⁷⁾ 동시에 工賑, 急賑, 賑捐 등을 실행하여 오히려 더욱 박탈하였고 수많은 賑災(재해대책본부) 기관을 만들어 부호 관료들의 자리를 만들어 줄 뿐 수재민이 실제로 혜택을 얻는 바는 없다고 비난하였다.⁵⁸⁾

광대한 민중은 일본제국주의와 주구인 만주국 지방정부가 돈을 내어 댐을 수리하고 이재민을 구제하며,

51) 趙毅敏, 「回憶在東北的地下工作及獄中鬭爭等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p. 112-113. 1983년 1월 24일 회고된 것임.

52) 「中共滿洲省委告滿洲災民書」(1932년8월10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1, p. 15.

53) 「中共滿洲省委關於水災決議」(1932년8월14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1, p. 19.

54) 「中共滿洲省委告滿洲災民書」(1932년8월10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1, p. 15; 「中共滿洲省委關於水災決議」(1932년8월14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1, p. 20.

55) 「中共滿洲省委關於水災宣言」(1934년7월22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9, p. 94.

56) 「中共滿洲省委爲反對日本及滿洲國官項的壓迫告災民書」(1933년7월31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4, p. 99.

57) 「中共滿洲省委關於「八一」反帝戰爭日宣言」(1934년7월15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1, p. 20; 「中共滿洲省委關於水災工作決議」(1934년7월19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9, p. 86.

58) 「中共滿洲省委關於水災決議」(1932년8월14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19, p. 72.

밥을 먹게 하고, 살 수 있게 하고,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⁵⁹⁾

만주성위 회고록에도 수재 상황은 등장한다. “1932년 말 송화강에 큰 수재가 났는데 홍수가 도로를 완전히 덮자 많은 빈곤한 인민이 사는 집들이 무너지고 입을 옷들이 없어졌다. 많은 빈곤한 인민들은 도처에 몰려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구제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 일본제국주의 경찰과 헌병의 감시로 인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다. 이때 만주성위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 밥을 먹고 집에서 살기를 원하며; 수재민이 집거하는 곳에서 만주국 헌병과 경찰을 철수시키고; 만주국 헌병과 경찰이 수재민을 감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수재민들은 분노하면서 소리를 높여 구호를 외치고 전단지들을 산포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자 재복 입은 헌병과 경찰을 편의복으로 갈아 입혀 몰래 상황을 탐문하였다. 이런 투쟁을 통해 군중의 반일 의지를 고무시킴으로써 일본제국주의는 반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⁶⁰⁾고 회고하고 있다.

5. 王道樂土 구현과 항일통일전선 형성으로서의 만주국

만주국이 외친 구호 중 중요한 것은 왕도낙토의 구현일 것이다. 그러나 만주성위는 만주국이 국민을 보호하고 왕도낙토를 이룰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무슨 ‘대만주국, 왕도낙토’, 무슨 ‘日華 제휴’, ‘민족협화’, 또 무슨 ‘대아시아주의, 동양화평’, 모든 이러한 것은 “일체 일본 강도 제국주의의 무단 선전으로 억지로 만들어 사람을 속이는 괴물같은 말이다. 일본은 무슨 ‘선무반’, ‘공작반’을 이용하고 소문을 퍼트릴 신문과 잡지 및 기타 앞잡이 단체를 이용하여도 거짓말과 사실적인 죄악을 감출 수는 없다”⁶¹⁾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만주성위는 만주국군이 항일세력 진압에 실패하자 일본군이 친히 나서기도 하였는데 어떨 때는 일개 연대의 병력으로 토벌작전을 벌여 대포 등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비행기를 이용하여 정찰하기도 하였다. 전투 중에는 보병, 포병과 발맞추어 비행기로 폭탄을 투하하여 군민을 공격하기도 하였다⁶²⁾고 하면서 실제로는 만주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인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무차별 공격을 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만주국 군정부 上校 비서관을 역임했던 盧元善은 당시 만주국 군정부가 항일세력을 공격했던 것에 대해,⁶³⁾ 길림성 경비사령관을 역임한 吉興이나,⁶⁴⁾ 길림성 경무처장을 역임한 王之佑,⁶⁵⁾ 安東省 공서 민정청 행정과정을 역임했던 王賢濤도 일본군대와 만주국 군경이 일본군이 주체가 되어 각 현을 토벌했던 것에 대해 증언⁶⁶⁾하였고 이에 관하여 기타 다양한 만주국 관리들의 증언이 있다.⁶⁷⁾

59) 「中共滿洲省委關於‘八一’反帝戰爭日宣言」(1934年7月15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1, p. 20; 「中共滿洲省委關於水災工作決議」(1934年7月19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19, p. 86.

60) 李實a, 앞의 글, p. 67.

61) 「東北反日總會, 東北抗日聯軍第2, 5軍爲死里求生告同胞書」(1936年3月1日)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22, p. 255.

62) 李實a, 앞의 글, p. 66.

63) 「盧元善筆供」(1954年 5月 14日)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p. 293-295.

64) 「吉興筆供」(1954年 12月 5日)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p. 452-469.

65) 「王之佑筆供」(1954年 8月 8日)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p. 502-535.

66) 「王賢濤筆供」(1954年 5月 8日)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 398.

67) 「富璇善關於張海鵬問題的筆供」(1954年 5月 24日); 「富璇善的筆供」(1954年 7月 20日); 「劉琚筆供」(1957年 4月 4日); 「吳國貴筆供」(1954年 7月 28日); 「正珠爾扎布筆供」(1957年 7月 3日); 「富璇善關於張海鵬問題的筆供」(1954年 5月 24日); 「趙竟昌筆供」(1954年 7月 22日); 「張秉哲筆供」(1954年 8月 17日); 「曹秉森筆供」(1954年 5月 14日)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참조.

만주성위 간부였던 李實은 만주국이 왕도낙토를 구현한다는 것이 허구였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만주국 하에서 망국노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많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중소상인은 동북지역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잔혹한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 관내로 줄이어 들어갔다. 그러나 북평에 사는 동북 출신의 대학생 중학생은 오히려 동북으로 가서 무장 항일 투쟁에 참가한 자가 적지 않았다. 또한 몰래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들어가 출로를 찾기도 하였는데 그 목적은 모두 반일본제국주의를 위한 것으로서 집이 망하고 국가가 유린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것”⁶⁸⁾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주국의 왕도낙토 건설에 대항하는 주요 세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만주성위 조직들은 어떻게 만주국에 대항하였을까? 만주국의 왕도낙토에 대항하는 만주성위의 논리는 항일통일 전선의 형성이었다.

만주성위가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제국주의가 사변을 일으켜 동북을 점령하고 공산당 조직을 파괴하고 대대적인 진압을 가하여 여러 동지들을 체포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을 독점하고 전중국을 침략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산당과 군중조직을 진압하였다.⁶⁹⁾ 일본제국주의와 만주국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속이고 위협하며 강박하는 수단으로 앞잡이 무장단체를 조직하여 화친 앞잡이나 간교한 단체로 경찰통치를 옥죄고 도처에 壯丁團, 商團, 民團을 조직하고 보갑법을 실행하여 점점 반일유격대의 활동 범주를 축소시켰다.⁷⁰⁾

비록 만주성위의 활동 범주는 점점 옥죄어 오지만 만주성위는 “적은 우리의 항일 대오와 각종 항일역량이 연합할까봐 두려워 했다”고 회고 하였다. “우리와 농민군중 및 항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인민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항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적이 각종 이간질을 하고 음모의 수단으로 ‘진적으로 공산당을 타도하지 紅胡子는 타도하지 않는다’라는 선전을 하면서 각종 방법으로 山林隊를 유혹하여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였다. 도처에 ‘宣撫班’ ‘宣撫列車’를 조직하여 우리 유격구 및 그 부근 농촌에서 ‘王道樂土’ ‘日滿協和’ 등 반동적인 선전을 하였고 정치적으로 군중을 우리로부터 이탈시키려 하였다. 더욱이 집단부락과 保甲制로 군중으로부터 유리시키게 하였다. 만약에 우리가 광범위하게 항일통일전선 정책을 강조하여 이러한 적의 음모를 격파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당이 모든 항일역량을 연합하여 공동작전을 하지 않으면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⁷¹⁾고 하였다. 만주성위는 만주국이 왕도낙토를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항일통일전선을 명확히 하고 강조해야만 만주국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만주성위가 동북지역에서 항일통일전선 정책을 시행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瀋陽은 이미 일본제국주의에 점령되어 (만주)성위가 심양에서 활동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哈爾濱으로 옮기고, 심양에는 특위를 건설하였다.”⁷²⁾ 그러나 “적의 감시가 너무 심해 1936년에는 조직과 단절”⁷³⁾되기도 하였다. 또한 적에게 조직이 여러 차례 파괴되었는데 왜냐하면 각종 절기에 공개적인 표어를 붙임으로써 만주국으로 하여금 만주성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노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⁷⁴⁾

68) 李實, 앞의 글, p. 53.

69) 李實, 앞의 글, p. 49.

70) 「中共滿洲省委吉東局關於綏寧、饒河工作給滿洲省委的報告」(1933년12월)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22, p. 56.

71) 李范五, 앞의 글, p. 147.

72) 楊一辰, 「1929年-1933年黨在瀋陽地區的活動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p. 5-6. 楊一辰은 1932년 4월에 심양특위 서기 역임, 1933년 여름에 체포됨. 1959년 5월 8일에 회고된 것임.

73) 楊一辰, 앞의 글, p. 6.

74) 楊一辰, 앞의 글, p. 7.

비록 동북지역의 항일 정서가 매우 높았고 특히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데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만주성위의 경험이 부족하여 1932년에 이르기까지 아직 통일전선이나 가장 주요한 적에게 타격을 입힐 줄 몰랐다.⁷⁵⁾ 그렇지만 만주국 군대 내에서 병사들이 기의할 수 있도록 활동하기도 하였으며,⁷⁶⁾ 韓源 동지를 黑龍江省 富拉爾基에 있는 만주국 부대에 파견하여 기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⁷⁷⁾

그러나 동북지역의 활동 노선이 현실에 맞게 적기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노선과도 관련이 있다. 구추백(瞿秋白)은 9.18사변후 상해에서 1.28항전이 폭발하자 “일본이 동북을 점령한 후 우리들의 전략이 마땅히 변해야 한다. 그러나 왕명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점차 변하여 원래 반제대동맹을 반일회로 바꾸고 일본이 점령한 哈爾濱 신문에 공개적으로 항일언론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소비에트정권을 항일민중정권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중앙이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평”⁷⁸⁾했다는 회고내용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1933년 봄에 중공중앙이 하달한 1.26지시신의 핵심내용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일본을 만주국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구호도 과거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자’에서 ‘모든 매국노의 재산을 항일 경비로 삼자’로 바꾸었고 ‘무릇 돈이나 양식을 내는 지주 자산계급은 모두 항일전선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주국군에 대해서도 매국노라는 구호 대신에 ‘중국인은 중국인을 잡지 않는다’로 바꾸고 ‘모든 항일 무장은 모두 단결하여 서로를 무장해제 하지 말라’고 촉구하였다.⁷⁹⁾ 다시 말하면, “일본이 동북을 침략하여 무산계급의 이익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유산계급의 이익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부분적인 유산계급에서 항일요구가 생겨났으므로 인민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인민혁명군과 인민정부를 조직해야만 한다”고 지시하기도 하였다.⁸⁰⁾ 반일통일전선은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소자본가 계급 및 민족자본가 계급과 일부 지주를 포함하였다.⁸¹⁾

중국 공산당 중앙 차원에서 동북 지역 현실에 적합한 정책이 적절하게 뒷받침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적극적으로 조직을 파괴하는데도 만주성위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항일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도 각 지역에 다양한 활동지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봉천특위 지도하의 심양시내에 여러 지부가 있는데, 병공장 지부, 東山咀子留日軍官候補生支部, 瀋海路 지부, 감옥 지부 등이다.⁸²⁾ 또 학교 지부, 福音堂 교회 학교 지부, 東北大學(후에 流亡大學) 지부, 가죽 신발 노동자 지부 등이 있었다.⁸³⁾ 瀋陽煙草公司, 北寧路 皇姑屯에 당 지부, 瀋陽南站부근에 당 조직이 있고 공장 안에 ‘赤色小組’ 등의 민중조직도 있었다. 체포된 동지를 돕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赤色救濟會’가 있었고 또한 많은 반일회 조직이 있었다.⁸⁴⁾

75) 楊一辰c, 앞의 글, p. 7.

76) 趙毅敏, 앞의 글, p. 114.

77) 何成淵, 「1930年-1934年中共滿洲省委, 奉天特委的活動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3, p. 20.

78) 楊一辰a, 앞의 글, p. 15.

79) 李耀奎, 「1.26指示信討論貫徹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 225. 1960년 8월 3일 회고된 것임.

80) 楊一辰a, 앞의 글, p. 15.

81) 李范五, 앞의 글, p. 149.

82) 夏尙志b, 「1934年-1935年中共奉天特委的活動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p. 119-120. 1959년 5월 27일 회고된 것임; 夏尙志c, 「回憶哈爾濱, 雙城, 瀋陽, 大連, 海倫等地黨的工作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 152-153. 1980년 4월 25일 회고된 것임. 심양에 있었던 지부는 瀋陽軍官候補生지부, 瀋陽소동변분외병공창지부, 심양지해용철로, 심양연초공사, 심양일본참, 심양감옥당지부 등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83) 李實b, 「中共滿洲省委活動情況, 1931-1933」,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3, p. 36. 1960년 7월 29일 회고된 것임.

84) 何成淵, 「1930年-1934年中共滿洲省委, 奉天特委的活動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3, p. 19. 1959년 4월 14일 회고된 것임.

당시 대련은 일본제국주의 부속지이고 일본이 만주와 전체 중국을 침략하는 후방기지였다. 일본이 중국을 통치하는 시험지여서 일본인의 동북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곳이며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정비된 공업도시였다. 대련은 일본제국주의의 군사, 정치, 경제적 중심지여서 일본의 각종 특무나 주구들이 각지에 퍼져 있었고 중국 노동자나 시민에 대해서도 가장 참혹하게 통치하였던 곳이었다. “노동자는 일본인 공장장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였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그것이 심하였고 일본은 혹시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까 봐 일본 노동자와 주민으로 하여금 중국 노동자와 시민을 감시케 하였다. 또한 관내지역과 대련을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련과 만주국 통치지역 사람들과 단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대련 민중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분노가 가장 심하였다. 대련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주성위도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비록 통치가 삼엄하고 조직이 부단히 파괴되었지만 만주성위는 계속 대가를 치루면서도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⁸⁵⁾

대련당에서 활동한 지부로서는 滿鐵入船驛支部, 海港碼頭支部, 東亞烟草公司支部, 大連火車站支部, 鐵路工廠支部, 福昌公司紅房支部, 日清印刷廠支部, 滿鐵中央試驗所支部, 滿鐵消費合作社支部, 大連協合實業學校支部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共靑團 조직도 있었다. 이외에 특별지부로 鐵路檢車 노동자와 열차노동자 및 많은 부문과 기관에서 단독으로 지부를 성립하지 못한 지부를 통합하기도 하였다.⁸⁶⁾

만주성위가 다양한 기층조직을 통하여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의 적극적인 파괴 공작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만주국은 경찰 기구 등을 정비하여 1933년부터는 ‘치안 경찰법’ ‘暫行取締槍炮規則’ ‘暫行保甲法’ ‘호구조사규정’ 등 다양한 법과 규정을 동원하여 만주국 치안정비에 심혈을 쏟았다.⁸⁷⁾ 이에 대응하는 만주성위는 조직이 파괴되면 일단 조직을 재건하여 군중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래 활동을 했던 지부의 동지를 찾아가서 당장 폭동이나 파업해야 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고 일본이 동북을 점령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반일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남만지역과 관내 홍군 민중 투쟁 소식을 알리고 재기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함으로써 조금씩이나마 진행된 교육으로 인해 기층조직이 회복되기도 하였다.⁸⁸⁾

만주성위는 만주국의 왕도낙토 이념의 실현을 막기 위해 혹은 그것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광대한 민중을 포함하여 항일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이념 실현을 방해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파괴된 조직들의 재건이 중요하였고 이에 대한 회고가 대체적으로 당시의 활동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지부의 활동이 어떠하였고 몇 명이 모였으며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하는 등등의 회고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6. 反滿이 아닌 반일본제국주의로서의 만주국

만주성위가 성립된 이후 주력했던 활동은 어떻게 빠른 시일내로 계급투쟁을 하여 공산혁명을 완성시킬 것인가였다. 그러나 1931년 9.18사변 이후 만주성위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관내지역의 다른 공산당성위와 달리 민족모순을 포함하는 활동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점차 공산당의 활

85) 夏尙志d, 「1935年-1936年大連地下黨的活動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 123. 1961년 8월 18일 회고된 것임.

86) 夏尙志d, 앞의 글, p. 122.

87) 「臧式毅筆供」(1954年 8月 9日) 『偽滿洲國的統治與內幕: 偽滿官員供述』, pp. 92-93.

88) 李實b, 앞의 글, p. 43.

동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항일무장투쟁이 혁명투쟁의 주요한 형식이 되었던 것이다.⁸⁹⁾

무장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일본은 농촌에서 유격근거지와 항일부대에 대한 진공과 포위를 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각종 항일조직을 파괴하였고 지도 간부들을 체포하였다.⁹⁰⁾ 관내에서의 공산활동도 순조롭지 못해 중국공산당 중공중앙이 옮겨다니는 처지가 되자 만주성위와 중공중앙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만주성위의 활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시기 공산당 조직의 특징은 당의 활동 重心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노동자에서 농민으로, 지하비밀활동에서 공개적인 무장투쟁으로 점차 방침을 전환시켰다.⁹¹⁾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만주성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회고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만주국이 동북 사회에 아니면 만주성위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는가 하는 면을 설명하기 보다는 만주국 성립이후 어떻게 만주성위 조직들이 파괴되고 또 활동요원들이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었나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만주국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을 표현하기 보다는 일본제국주의의 잔혹성에 집중되고 있다. 만주성위 활동에서 만주국보다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반만이 반만주국이 아니라 반만주인 혹은 만주족을 반대 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양한 항일활동을 담고 있는 만주성위 회고록은 대체로 반만주국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반일본제국주의를 외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는 두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만주국과 일본제국주의를 동일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만주국의 파괴성을 충분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1936년 “항일과 반만을 동시에 제기하지 말라”(1936년 10월 2일 지시)고 하는 반만용어 불사용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회고된 내용이 전부 만주국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일본제국주의라고 사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가 반만이라는 구호보다는 반일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시 항일하고 반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반만이 전민 항일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지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었다. “평상시 말하는 항일반만에서 ‘만’은 만주국을 말하는 것이지 만주국 인민이나 만주국 직원 혹은 만주국 병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주국 정부 기관 직원이나 만주국 병사, 하급군관 중에 항일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항일 반만인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전민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⁹²⁾

또 “항일을 하지만 반만하지 않는다면 일본제국주의가 왜 만주국을 성립하였을까? 동북 3천만 동포가 모두 망국노가 될 것인가? 군중은 망국노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일은 반드시 반만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항일반만인민정부를 세우는 것은 바로 만주국을 부인하는 것이다.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어용인 괴뢰정부이다. 만주국과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는 없다. 반만은 만주국을 반대하는 것이지 만주 인민을 반

89) 韓光, 「在東北三省徵集會上的講話」,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2, pp. 176-177. 1982년 8월 23일 회고된 것임. 공산당에서 했던 주요한 것은 1.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확대하여 공산당 스스로 무장대오를 지도한다. 2. 간부를 민중항일무장대오중에 파견하여 항일구국군, 자위군, 의용군에서 활동하고 선전하여 영향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일할 수 있도록 이끈다. 3. 간부를 만주국군중에 파견하여 만주국군이 기의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예를 들어 1932년말에서 1933년초 珠河中心縣委는 간부를 파견하여 韋沙河鎮의 溫團에 주둔한 만주국군에 침투해 들어가 성공적으로 기의하도록 이끌었다. 1933년 가을에는 盤石中心縣委가 吉昌鎮에 주둔한 만주국군 제14단의 하나인 炮連이 기의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직하여 남만홍군유격대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4. 간부를 파견하여 홍창회, 대도회 등 농민무장 반무장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도록 하였다.

90) 馮仲云, 「回憶金仙陽和大連黨組織部分情況」,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3, p. 3. 1951년 7월 3일 회고된 것임. 1934년 만주성위 조직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2000여명이 체포되고 80여명이 사형, 200여명이 무기징역, 나머지는 징역의 판결을 받았다.

91) 韓光, 앞의 글, p. 178, p. 185.

92) 李范五, 앞의 글, p. 154.

대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만주 인민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동북에서 항일전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동북인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⁹³⁾ 등등의 불만을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다. 당시 활동 가운데 반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역으로 말하면 만주국이 결국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세워진 괴뢰라는 것을 오히려 부각하는 기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편 만주성위의 기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본제국주의와 만주국’을 병기하고 있다. 양자를 병기하면서도 항상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의 괴뢰라고 하는 설명을 빠지지 않고 붙이고 있다. 결국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의 괴뢰이고 만주국의 핵심 통치자는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만주성위 대표단은 “만주의 통치자는 일본제국주의”라고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통치는 주요하게 일본 침략자의 무력에 의지한 바탕위에 성립된 것으로서 괴뢰 ‘만주국 정부’를 이용하여 그 의미를 감추려고 할 뿐이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⁹⁴⁾

만주성위는 만주국 때문에 반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 만주성위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만주의 상황 변화나 만주국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투쟁 방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책에 현실을 맞추어 활동하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현실과 유리되는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⁹⁵⁾ 이러한 한계가 항일통일전선 형성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고 서로가 역량을 상쇄시키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만주국의 토벌에 의해 항일세력이 점차 줄어들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정책이나 활동 방향 등의 모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7. 결론: 만주국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괴뢰성

본고에서는 만주성위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만주국 관리들의 기억을 통해 만주국의 모습을 확인해 보았다. 만주국의 통치자와 만주국의 대항자가 본 만주국의 모습은 왕도낙토 구현을 옹호하려는 측면과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측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집단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그리는 만주국은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폭정을 행하는 일본제국주의의 괴뢰국일 뿐이었다.

만주성위는 원래 동북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성립된 것이나 1931년 9.18사변으로 일본이 동북지역을 점령하자 항일의 가치를 선명하게 한 조직이기 때문에 만주국에 대한 만주성위의 인상은 단편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만주성위가 인식하는 만주국은 분명히 일본제국주의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괴뢰국으로서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주성위의 기억이나 기록을 통해서만 만주국의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나 국민에 대한 관심 표명 등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엿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다면 만주국의 관리를 역임했던 사람들은 만주국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이들은 각기 다양한 이유로 만주국 건국에 참여하였겠지만 만주국의 패망으로 전범이 된 상태에서 만주국에서 행했던 다양한 내용을 자술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자기 변명식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만주국이 얼마나 동북 민중에게 해악을 끼쳤으며 결국 그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정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93) 楊光華, 「在東北三省徵集會上的發言」,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3, pp. 224-225. 1982년 8월 22일 회고된 것임.

94) 「中共滿洲省委代表團接受中央及省委指示的決議: 吉東目前狀況和黨的任務」(1933년 5월 15일)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22, p. 2.

95) 李實c, 「1931년 4월-1932년 9월 滿洲省委組織狀況及路線, 指示, 會議等問題」, 『中共滿洲省委時期回憶錄選編』 3, p. 84. 1978년 8월 30일 회고된 것임.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보면 만주국의 관리나 만주국에 대항했던 만주성위나 만주국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 만주성위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만주국 관현이 자술 자료를 사용하면서 양자를 굳이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외면적으로는 대비되는 집단이지만 그 기억과 기록이 대부분 중첩되면서 나름대로의 괴뢰국으로서의 만주국 이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합주곡이 당시 만주성위의 사회적 기억으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주성위가 공산혁명과 항일이라는 깃발을 세우고 반만주국, 반일본제국주의라는 활동을 했던 기억과 기록은 단순히 당시에만 의미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부단히 재생산됨에 따라 만주국에 대한 이미지가 일정 정도 고착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만주성위가 기억하고 기록했던 만주국의 괴뢰로서의 생김새는 그 후에도 계속 기억이 재생산되면서 또 역사적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교육되어지고 있다. 최근 출판된 만주국관련 중국인의 저서를 보아도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의 재생산이라고 할 정도로 관박이 역할을 하고 있다.⁹⁶⁾

왜냐하면 역사기억은 부단한 재생산으로 인해 비로소 전달되어 내려가기 때문이다. 만약 역사기억이 일단 재생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중단되는 것은 신기할만한 일도 아닐 것이다.⁹⁷⁾ 기억은 집단적인 자원이 부단히 영양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도덕적인 기반하에서 지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⁹⁸⁾ 현재에서 과거 역사를 해석하는 작업이 역사 본래의 연속 및 변천과 더불어 구성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할 것이다.

만주국의 생김새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논의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 ‘수탈론(停滯性論)’과 ‘개발론(근대화론)’의 논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면모로 치우쳐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수탈론과 근대화론 중 어느 범주의 입장에 간단히 서는 것 보다는 권력의 교묘한 기술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만주국이 괴뢰국이든 식민지이든 간에 중국의 동북지역에 독립국을 표방하는 근대국가가 들어섰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에 천착하는 경우도 있다.⁹⁹⁾

대체적으로는 중국에서는 만주국을 일본제국주의의 수탈론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만주국의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자는 일본이 정복되고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동북 지역 사회를 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개조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방법은 서구열강 제국이 아시아에서 했던 식민지적 지배나 수탈과는 달랐다. 일본이 근대국가 건설의 이상과 정열을 갖고 정복된 동북지역을 개발하여 1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근대화 사회를 구축했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¹⁰⁰⁾ 또한 만주국이 거대한 유산을 남긴 것을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모택동은 1945년 4월 연안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7주년 대회에서 “설사 모든 근거지를 잃었다고 해도 동북이 있다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실제 전후 동북은 중국 중공업 생산의 90%를 차지하였다. 만주국 유산을 둘러싸고 국공내전이라는 각축이 치열하였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이 이 지역을 수중에 장악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수 있었

96)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든다면, 解學詩, 『偽滿洲國史新編』, 人民出版社, 北京, 1995; 解學詩, 『歷史的毒癩: 偽滿政權興亡』, 廣西師範大學出版社, 桂林, 1993; 霍燦原, 潘啓貴 主編, 『日偽憲兵與警察』, 黑龍江人民出版社, 哈爾濱, 1996; 傅大中, 『偽滿洲國軍簡史』, 吉林文史出版社, 長春, 1999; 王希亮, 『日本對中國東北的政治統治, 1931-1945年』, 黑龍江人民出版社, 哈爾濱, 1991; 王鴻賓 主編, 『溥儀和偽滿洲國』, 河南人民出版社, 1994 등.

97) 王汎森, 앞의 논문, p. 45.

98) Lewis A Coser, 邱澎生 譯, 앞의 논문, p. 38.

99)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서언.

100) 黃文雄, 『滿洲國의 遺産: 歪められた日本近代史の精神』, 光文社, 2001, p. 32.

다¹⁰¹⁾는 것이다. 명백하게 말하면 만주국의 유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기반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만주국의 근대국가적 면모를 보려는 측면에서는 만주국은 군인들의 영토라고 할 정도로 폭력이 서슴없이 구사될 수 있는 곳이었지만 다른 식민지에서는 보기 힘든 만주국 건국의 정당화 작업으로서의 이념공작과 국민에 대한 물질적인 혜택을 포함하여 ‘왕도낙토’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만주국은 희망의 논리 안에서 국민들을 다양하게 보호하였다. 복지정책의 틀을 세워 국민자를 돕거나 세금 징수를 관대하게 하고 대인 어떤 통제정책 등을 펴기도 하였다. 비록 알팍한 수준일 수 있지만 만주국의 근대 국가로서의 각종 제스처와 면모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¹⁰²⁾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George Bronson Rea는 만주국이 독립국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것에 대해 만주국은 중국이라는 모국에서 이탈한 자식으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300년간 중국의 부모로서 역할을 했지만 쌍방이 동의 하에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주국이 주권국가로서 독립국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³⁾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주국에 대해 ‘수탈론’ 혹은 ‘근대화론’으로 접근하던 간에 만주국의 면모에 괴뢰성이 있다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서양 학자도 인정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영국인 F. C. Jones는 “허구적인 만주국은 장엄하게 하나의 독립국가임을 선포하였다”¹⁰⁴⁾ 그러나 “실제로 만주국은 시종 일본의 단순한 괴뢰였다”¹⁰⁵⁾. “일본정치 기구의 하나의 특징은 표면적인 권력과 실제권력이 나뉘어 있는데 이는 만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¹⁰⁶⁾ “만주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인의 간판을 단 일본정부이기 때문에 만주국이 중국이나 외국의 관찰자로부터 모든 사태의 실제상황을 은폐할 수는 없다. 무릇 일본인이 아닌 경우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모두 일본인의 감시 하에 생활하여야 하고 일본인이 옆에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¹⁰⁷⁾고 만주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만주국의 괴뢰성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만주국을 세운 의도가 일본제국주의의 이익 확대 및 침략성에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상 쉽게 만주국의 괴뢰성 이미지나 모양새를 벗어 던지기는 힘들 것이다.

집단기억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에 대한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몸부림치며 생존을 구하고 있는 사회는 장렬한 과거의 역사로부터 현재에 처한 상황과 부합하는 역사의 예를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사회가 기본적인 생존 안전에 강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사회는 다시 과거의 역사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¹⁰⁸⁾ 마르크스가 프랑스대혁명에 참가한 자들에게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말을 하면서 당대의 임무를 실현했다”고 말했던 것은 고대 언어나 사건 및 옷이 집단 역사 기억을 통해 현실을 바꾸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의 현실도 역사기억에서 재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⁹⁾ 그렇다면 만주성위의 만주국에 대한 기억과 현 중국의 만주국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자연스럽게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101) 黄文雄, 앞의 책, p. 24.

102) 한석정, 앞의 책, pp. 121-141 참조.

103) George Bronson Rea, *The Case for Manchoukuo*, D. Appleton-century Company, New York, 1935, p. 13.

104) F. C. Jones, *Manchuria Since 1931*,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Broadwater Press, Welwyn Garden city, 1949, p. 24.

105) F. C. Jones, *Ibid.*, p. 24.

106) F. C. Jones, *Ibid.*, p. 24.

107) F. C. Jones, *Ibid.*, p. 28.

108) Barry Schwartz, Yael Zerubavel and Bernice Barnett, "The Recovery of Masada: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ological Quarterly*, 27, No. 2, 1986, pp. 147-164. Lewis A Coser, 邱澎生 譯, 앞의 논문, p. 38.

109) 王汎森, 앞의 논문, p. 49.

Abstract

Memory, Manzhou Government, and the Manchuria Provincial Committee : The Image of Manzhou Government via Manchuria Provincial Committee Oral Accounts and Records

Park Sunyoung
(Professor,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anchuria Temporary Provincial Committee (MTPC) was established in 1927. The name was changed to Manchuria Provincial Committee (MPC) in 1928 and was finally dissolved by the Comintern in 1936. MPC activities of anti Japanese imperialism and anti Manzhou Government in Manchuria coincide with the beginning of the Manzhou Government over its thirteen year history.

This paper analyses the social memory of the Manzhou Government based on MPC member oral accounts and original records from that time. Detailed information was drawn from three main sources: 1) original historical material from the Central Archives and the Liaoning, Jilin and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2) memories collec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of Manzhou Government members and 3) unpublished transcripts of MPC member interviews conducted during the 1950s and 1960s by Chinese scholars.

This paper analyses the sources to ascertain their opinion of the Manzhou Government and their reasons for having formulated such opinion. This paper can conclude that the image of the Manzhou Government as a puppet regime was not just a result of being a product of the time as present day historians reproduce similar images from social memory.

key words: 사회적 기억, 만주성위, 만주국, 반일본제국주의, 괴뢰정권

Social Memory, Manchuria Provincial Committee, Manzhou Government, anti Japanese Imperialism, puppet regime